서해 남부지역의 계란생산을 책임진다

▲ 목포지역의 계란유통 활성화에 노력하는 이호남 지부장

지난 11일 전남 무안군 소재 한국양계농협 목포계란직판장에서는 광주전남지회 목포채란지부 현판식이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윤한성 광주전남도지회장을 비롯, 이영재 한국양계농협 조합장, 윤재섭, 김재균 전 광주전남축협 조합장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의 목포채란지부의 탄생을 축하해주었다.

30년 역사와 전통

목포채란지부는 1977년 6월 서해남부지역의 양계인 50여명이 주축이되어 (사)대한양계협회 전남지부 목포계우회로 정관을 제정한 이후 활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목포인근에 계란 창고를 마련하여 광주전남축협보다 앞선 시점에서 계란 집하사업을 시작하는 등 양계산물 생산 및 판매는 물론 양계산물 조사통계와 유통개선에 선봉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른 지역보다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목포채란지부는 29년동안 11대의 회장단을 거치면서 양계인들의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해 왔다. 특히, 1989년에는 계우회로 활동을 해오던 것을 목포분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식적인 양계협회의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2003년 양계협회 조직이 지회, 지부로 승격됨에 따라 설립취지에 부흥하기 위하여 목포채란지부 설립을 통해 채란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목포채란지부가 설립되면서 광주전남지회(지회장 윤환성)는 현재 나주지부, 무안지부와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지부를 두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앞장설 수 있게 되었다. 목포지부는 오랫동안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

로 1개시(목포시)와 6개군(강진, 해남, 영암, 무안, 신안, 함평)에서 3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부분 초창기부터 활동해오던 농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 현판식에 참석한 주요인사 및 회원들(맨앞 가운데 이호남 지부장을 중심으로 윤한성 지회장(좌)과 이영재 한국양계조합장(우)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계란유통 개선에 노력

목포채란지부 재탄생의 의미는 그 동안 지부 설치문제로 다소 소원했던 지회와의 불편했던 관계를 완전히 해소하고 전 지역을 묶어 지회를 중심으로 단합의 기회를 다질 수 있다는데 있다. 또한 그동안 계우회, 분회 등의 활동을 함께 해오던 회원들과의 재화합을 통해 목포시 지역을 중심으로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포계우회 창립멤버이며 3대 회장을 지낸 바 있는 이호남 지부장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각 시군지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목포채란지부를 주축으로 한 서해남부 지역의 채란인 권익보호에 노력할 뜻을 밝혔다.

그동안 목포지역은 계란유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의 한 곳이었다. 물론 한국양계조합 목포계란직판장이 있지만 이곳에서 회원들의 물량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상인들과의 마찰이 빚어지기도 하며, DC로 인한 어려움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계란이 과잉되거나 난가가 하락할 경우 목포지역의 채란인들은 상인들을 통해 계란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입되면서 수도권과의 오해아닌 오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현재 대부분 사라지고 유통이 안정을 찾으면서 DC 등도 타지역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호남 지부장을 위시한 권동혁 총무이사 및 지역 회원들의 노력이 주요했으며, 앞으로는 조합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채란업을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 임원명단

지 부 장 : 이호남
총무이사 : 권동혁
감　　사 : 나상화, 박용진
이　　사 : 윤재섭, 안영식, 서효신
　　강희채, 이봉출

사무실을 무안군 소재 한국양계농협 목포계란직판장에 둔 것도 무안지역에 회원들이 상당수 분포해 있으며, 계란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계란직판장을 통해 회원들의 계란 유통에 최대한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목포채란지부는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도지회 및 지부들과 연계하여 난좌 공동구매 등 원가절감에 역점을 두고 있다. 목포지부 회원들은 채란업계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한미 FTA 등 국내외적으로 변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목포채란지부의 탄생을 계기로 회원들의 단합과 화합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취재 | 김동진 편집장)